

자동차

Car

리콜 확 줄었다 작년 31만4천여대

지난해 자동차 리콜이 1년 전보다 84% 가량 급감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리콜은 총 31만4천866대로 지난 2005년 181만935대에 비해 82.6%(149만6천69대) 감소했다.

리콜 차량은 국산차가 30만6천586대로 지난해 179만9천



346대에 비해 무려 82.9%(149만2천760대) 줄었으며, 수입차는 8천280대로 지난해 1만1천589대보다 28.6%(3천309대) 감소했다.

한편 들어선 한국풀크스바겐의 '파사트' 920대를 비롯, 한국닛산의 '인피니티'(FX35, FX45) 595대, GM대우의 '원스톱<사진>' 4만6천147대 등에 대한 리콜이 잇따르면서 자동차업계가 연초부터 물살을 끌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잘 고른 중고차 새차 안부럽다

새차보다 저렴한 가격과 바로 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170만대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또 전체 중고차 거래의 60% 가량이 개인간 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고차 유통구조를 파악하라=차종을 결정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같은 중고차라도 사고경력의 유·무, 자동차의 상태, 옵션 장착 여부에 따라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시장은 서구 매월동 중고차매매단지와 남구 송암동의 송암차매매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시장을 찾을 경우 밸롭을 팔아 '천차만별'인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원하는 차종의 시세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2~3개 업체에 전화하거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살펴보는 것도 중고차 구매의 기본 요령이다.

온라인은 SK에서 운영하는 '엔카'와 중고차 쇼핑몰 '보드드림',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중고차 클린룸'과 '옵션' 등에서 중고차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이용하면 굳이 중고차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공매도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 공매란 자방세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압류된 차량이나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중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보관 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매

■ 중고차 고를 때 주의할 점

각하는 제도다.

◇사고이력 및 성능점검기록부 점검 필수=합리적으로 중고차를 선택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매에 나서야 한다. 새 차와 달리 따지고 조회해 볼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시 중고차 성능과 상태를 나타내는 '중고자동

사고경력·옵션장착 여부

꼼꼼히 살펴야 후회 안해

수입차 비싼 수리비 부담

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공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자가 이 점검기록부 교부를 꺼리거나 미룬다면 문제가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고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고이력을 소비자가 알기란 쉽지 않다. 이를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history.or.kr)'를 이용하면 된다.

'카히스토리'는 차량 사고 피해로 인한 수리비

지금의 보험처리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신차 출고 이후부터 모든 보험사고기록이 제공되며, 차량번호와 차 소유자의 변경도 제공된다. 또 타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기록과 전손·도난·침수여부 등의 특수 보험사고이력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고차라고 무작정 겁낼 필요는 없다. 특히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범퍼에 사고가 났다거나 펜더 도어 트렁크가 교체된 정도라면 차

운행에 별 지장없이 무사고차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도 있다.

다양한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는 중고차라 할지라도 구매 전 반드시 시운전을 해야 한다. 직접 운전을 해보면 핸들 헬링이나 엔진 소음은 없는지, 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을 잘 작동을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수입차도 잘못 고르면 '낭패'=중고차에 대한 신중한 구매 태도는 수입차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오래된 중고 수입차를 구입했다가 엄청난 수리비로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가 22만 대에 이르면서 중고 수입차시장도 격차하게 커지고 있다. 생산된 지 10년 정도 지난 독일산 고급 수입차들의 시세는 1천만~2천만원으로 국산 중형급 새 차 수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싼 가격에 수입차를 경험해 보기 위해 덜컥 구입했다가 차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상당수 중고 수입차 구입자들은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고통을 받고 있다. 심지어 오래된 차들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정식 딜러 권한이 없는 일반 수입차들이 들여온 차들은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한다. 수리비를 아끼려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일부 정비업소를 찾았다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돈만 날리는 사례도 많다.

광주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수입차는 10년 넘게 타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모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수입차의 내구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기부품 등은 나아가 속일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고차 10대 중 6대 '사고차'

'아반떼' 'SM5' 중고차시장 가장 인기



르노삼성 'SM5'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10대 중 6대 가량은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 평균 사고 건수는 1.5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르노삼성 차량의 'SM5'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중고차 이력조회 서비스 '카히스토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이트를 통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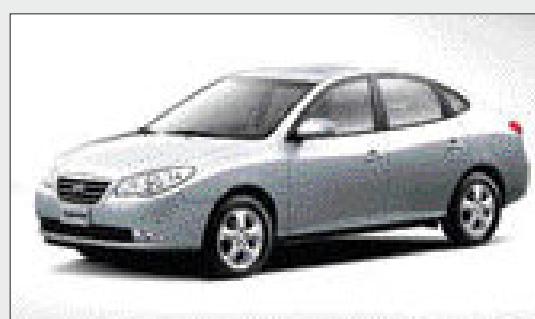
회된 28만1천404대 차량 가운데 58.4%(16만4천421대)가 사고차량으로 집계됐다.

사고차량 가운데 침수·전손·도난 등 특수사고이력은 전체의 1.8%(5천92대)로 나타났다. 사고를 경험한 차량들의 평균사고 건수는 1.5회였으며, 최고 19번 사고가 난 자동차도 있었다.

또 주인이 바뀐 경우는 평균 1.9회였으며, 주인이 최대 26번이나 바뀐 차량도 있다. 차량번호변경 평균횟수는 1.3회로, 최대 17번까지 차량번호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중고차종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은 현대차의 '아반떼'였다. '아반떼'는 지난해 차종별 조회건수가 1만4천298회에 달하면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조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구입자들의 구매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2위도 조회횟수 1만1천522건을 기록한 '아반떼 XD'가 차지했으며, 'SM5'(1만812회)와 '마티즈'(1만212회)가 3, 4위에 올랐다. 이어 '코란도'(9천424회), '그랜저XG'(9천185회), '싼타페'(7천508회), '뉴EF쏘나타'(7천195회), '카니발'(6천985회), '무쏘'(6천500회) 등



현대 '아반떼'

의 순위였다.

카히스토리 관계자는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 준 고차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고이력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매년 일부 물가적인 매매업자에 의해 반복되는 중고차 추행거리 조작과 사고이력 속임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223-1140, 020-101-602-2532
(광주문화 신본점점, 대인동 상설서점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
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우부동산랜드

☎ 010-771-0923 훈 011-607-2213
(전월동 대성하고길 풍성하고길)

남구 석정동(전) 1876평 매도

대전부근 0/3 (나무식재판) 250평, 흥정1동 100평

도곡 전원주택부지 147평 매도

인화역 대성동 147평 매도

임대 2410평

임대 2410평